

01. 수업과 잘 연계된 동기유발

질문하는 수업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의 말문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퀴즈도 필요하고, 관심을 끌만한 작은 이야기거리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짧은 수업시간에 동기유발과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까지 하니 시간이 부족하고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끊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론수업은 좀 무르익어야 제대로 토론한 맛이 나는데 시작하려다가 만 느낌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쩐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질문을 만들고 그것을 이야기 나눈 후 다시 질문을 뽑고 하는 초기형태의 하브루타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형태는 어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에 집중하기 위해 미리 집에서 과제를 하면서 스스로 동기유발이 되도록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토론수업은 잠깐 스쳐지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미리 공부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토론의 깊이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한 끝에 한가지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리 집에서 충분히 공부해 오게 하는 방법, 그렇게 연습하면서 미리 동기유발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연습이든 복습이든 이미 자기주도적으로 준비된 아이들입니다. 한 해의 고민 끝에 시도한 방법, 학생들의 반응은 다른 해와 달랐습니다. 주제를 더욱 이해하고 토론하기 위해 준비가 된 학생들처럼 보였습니다. 수업 중 절반 이상 온전히 만든 질문으로 떠들기 때문에 사회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지요.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연습노트에 기록하면서 이미 동기유발이 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리 충분히 자료를 찾고 준비된 아이들은 이야기거리가 풍부했지요. 질문은 있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는 이야기들이 없었던 기존의 질문 만들기와 짝 토론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업 전 2번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① 이틀 전에 교과서를 읽으며 연습노트를 정리하고, 궁금한 질문을 3~5개 정도 만들어 오게 한다.
- ② 연습노트에 적힌 각자 궁금한 질문 중에서 모둠별로 최고의 질문을 뽑게 한다.
- ③ 모둠별로 뽑은 최고의 질문 7개 중에서 함께 조사할 질문 3~4개를 선정한다.
- ④ 연차시 수업일 경우 ②, ③을 앞 차시 수업이 끝난 직후에 한다.
- ⑤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하거나 교과서 이외의 역사책을 함께 읽기로 약속했다. 담임이 추천한 책도 괜찮고, 다른 책을 읽어도 좋다. 학급에서는 성인용 역사책 중에서 그나마 쉽고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주었다.

⑥ 가끔 어려운 낱말이 나오기도 하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읽으니 무리가 없었고 반응이 의외로 괜찮았다.

이 주제에서는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난 농민 봉기를 소재로 하여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과 농민의 어려운 상황, 농민 봉기의 전개 과정, 농민의 요구 등을 전체 2차시에 걸쳐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암기 위주의 수업이 될 수 있고, 암기 위주를 벗어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역사를 보는 관점까지 길러주고 싶은 교사의 또 다른 목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1차시는 예습을 통해 모둠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가벼운 토론을 이끌어내려고 했고, 2차시는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질문으로 서로가 찾아온 자료들을 토대로 토론하면서 마음껏 떠들면서 공부하는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서 이외의 역사책을 미리 과제로 읽어오도록 했더니 가끔 어려운 낱말이 나오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읽었으므로 무리가 없었고 반응이 의외로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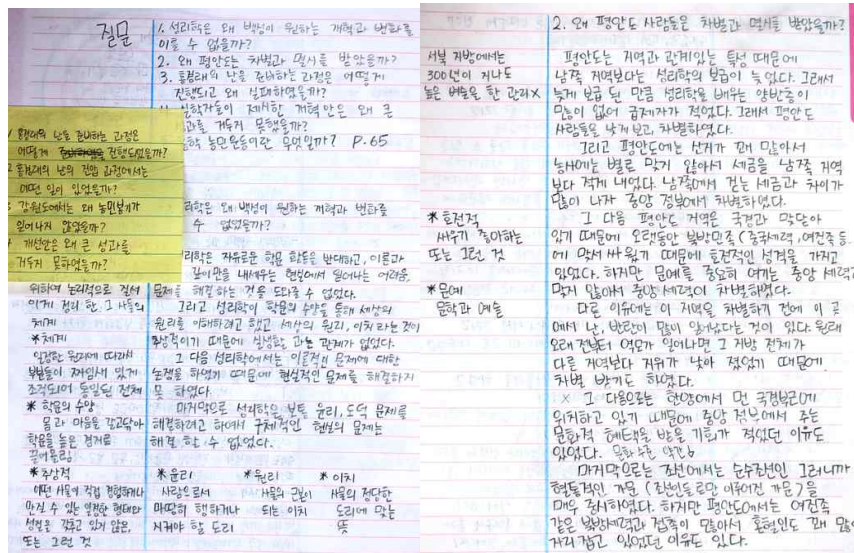
02. 모둠별 보고서 작성

지금부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차시 가벼운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시간 이전에 학생들에게 각자 집에서 공부하면서 예습노트를 작성한 상태로 참석할 수 있게 일러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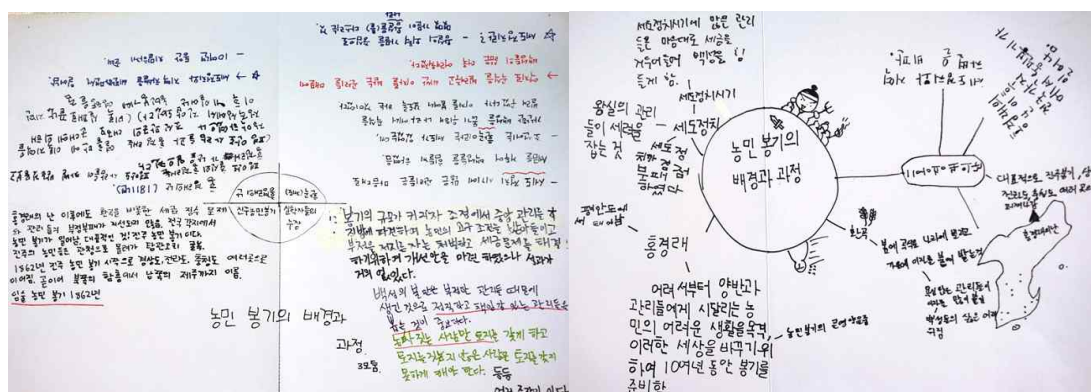
The image shows two pages of handwritten student work. The left page is a study guide for 'The Great Famine' (대흉년) and 'The Great Famine' (대흉년). It includes a table of contents, a list of key terms, and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famine's causes and effects. The right page is a student's response to the 'Great Famine' topic, featuring a circular diagram with 'Great Famine' at the center, surrounded by 'Famine', 'Famine', 'Famine', and 'Famine'. Below the diagram is a list of questions and answers related to the famine.

이 사진은 미리 집에서 교과서 등을 읽은 후 수업을 위해 예습노트를 작성해 온 장면입니다. 연차시 수업일 경우 먼저 예습노트를 작성한 후 1차시 수업을 합니다. 예습노트 작성 시

각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만들기'도 함께 과제로 제시합니다. 1차시 수업이 끝나면 최고의 질문을 선정하여 과제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질문에 대하여 미리 조사를 해오게 한 후 2차시 수업을 합니다.



왼쪽 예습노트 사진에서 포스트잇의 질문은 각자 궁금한 질문을 3~5개 정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 질문 만들기는 1차시 수업 하루 전에 과제로 제시합니다. 왼쪽 사진에서 가장 위쪽 질문 5가지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최고의 질문'입니다. 1차시 수업이 끝나고 보통 종례 시간에 최고의 질문을 뽑습니다. 학생들은 최고의 질문에 대해 미리 조사하여 예습노트에 정리합니다. 예습노트 정리하는 두 번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2차시 수업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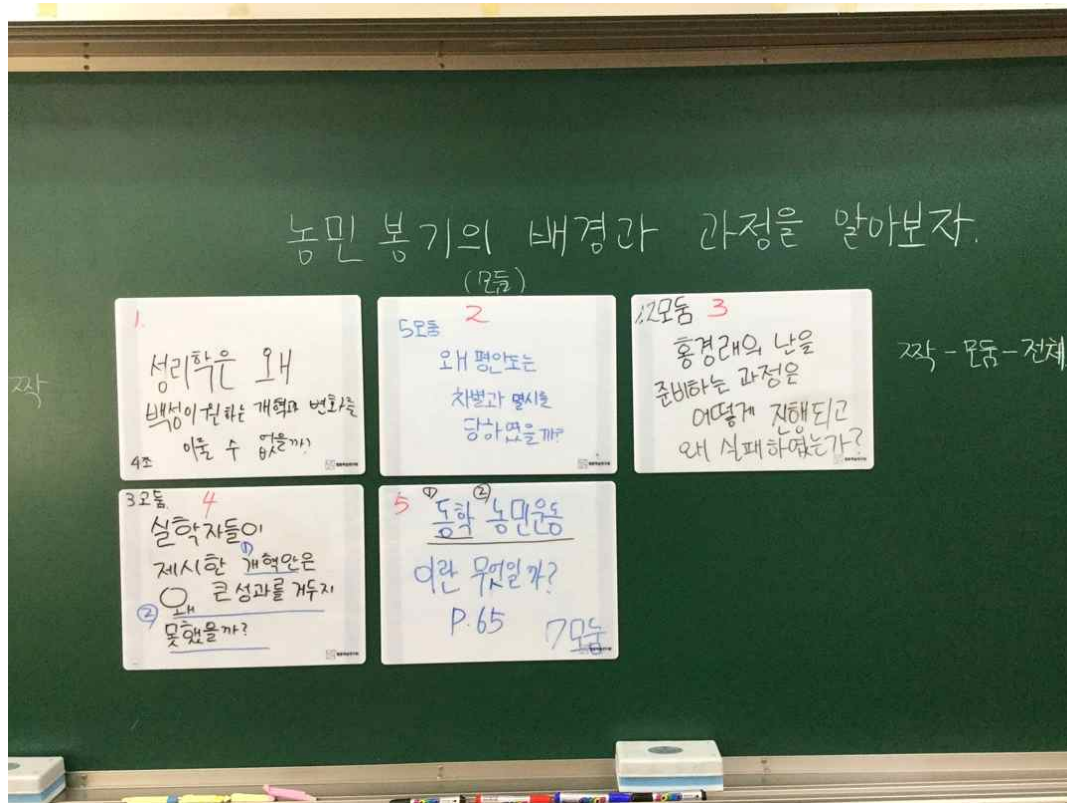


모둠별 보고서는 모둠별 인원수에 따라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 작성하므로 모둠학습에 무임 승차자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발표를 하기 위한 모둠별 보고서의 예시 사진입니다. 각 모둠의 보고서를 전체 앞에서 2명 내외의 학생이 발표하도록 지시 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질문을 받습니다. 발표 모

둠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어느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간단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지만 다음 차시에 집중적인 토론을 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 위주의 질문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03. 최고의 질문으로 토론하기

1차시에서 내용 파악 위주의 질문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시 집중토론을 실시해 봅니다. 앞선 1차시 이후 최고의 질문을 선정한 이후 과제를 통해 조사를 해 왔으므로 선정된 최고의 질문에 대한 토론방법을 정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토론 시 문제 유형에 따라 짝, 모둠, 전체토론 중에서 적절한 토론그룹을 교사가 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때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습도 스스로, 토론 방법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진에서 보이는 칠판에 '짝, 모둠, 전체'라고 기록한 것은 학생들과 함께 어떤 유형의 그룹으로 토론을 할 것인지 기록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질문 5가지입니다.

1. 성리학은 왜 백성이 원하는 개혁과 변화를 이룰 수 없을까?
2. 왜 평안도는 차별과 멸시를 당하였을까?
3. 홍경래의 난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왜 실패하였는가?
4. 실학자들이 제시한 개혁안은 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5. 동학농민운동이란 무엇일까?

▲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질문

1,2번은 농민봉기의 배경에 관한 질문이며, 3번은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4번은 시간 관계 상 생략했으나 전 시간에 이미 조사발표를 했기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1번 '성리학의 한계'에 대한 질문은 이해는 하고 있으나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때에 교사가 간단한 질문을 던져 해답을 이끌어 낸 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에는 살짝 살짝 교사가 질문으로 건드려주는 중요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아직은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거나 축적된 지식이 아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의 질문과 이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대비하는 교사의 준비가 있으면 이런 도움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수업의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이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의 질문, 그리고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 지식, 이해를 넘어서 고등 사고력까지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교실수업의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2번 질문 '왜 평안도는 차별과 멸시를 당하였을까?'를 통해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경 지역에 혼혈도 있었고 새 땅을 차지한 후 죄인을 이주시켰고 학문에 능통한 지역도 아니었기에 조정에서는 아예 관직의 기회를 주지도 않는 차별을 보였다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지었습니다.

역사수업에는 내용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아가는 토론만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업목표달성이 아닐까 하는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융합과 재구성을 자유자재로 오고가는 것은 학습자들의 이미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예습을 통해 자료를 나름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는 했지만 질문을 하면서 궁금한 내용은 더 많아지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질문도 오가며 적극적이었지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교사로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생긴다면 교사의 적절한 질문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앞선 질문전략에서 일상생활과 적용을 한다든지 다른 사건들이나 상황을 연결하는 질문을 던져보신다면 토론으로 무르익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은 더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나요?"

우선 교사인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우했는지 먼저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고, 최근에는 어떻게 대하려고 노력하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지만 인간은 그 자체

로 소중하기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3번 질문 ‘홍경래의 난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왜 실패하였는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짝·모둠·전체 토론을 모두 거쳤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를 모든 학생이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촉박하여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긴 시간 토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업 1일 전에 최고의 질문을 미리 뽑아서 깊이 연습하며 공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등학생들이지만 더욱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볼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론 도중 현재 우리 삶과 연관된 질문으로 토론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지요. 적용과 연결이 가능한 창이가 될 수도 있고, 역사가 현재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대통령 같은 사회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경래처럼 봉기(데모)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맘에 들지 않는 지도자를 대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솔직한 의견을 발표했다. 그 중 나와 반대 의견인 학생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학생이 말했습니다.

“먼저 지도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여 현재 우리의 상황을 알려주고 새로운 방법을 알려줘서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와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와 만남의 방법 중 하나가 데모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인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생 시절 데모(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데모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라도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나와 반대 의견이지만 참 괜찮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반대로 저 학생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만 있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었지요. 학생과 교사 서로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서로 다양한 생각, 의견이 있기에 사회가 조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추가로 아래의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치적 성향도 좌파, 우파처럼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려 합니까?”

길지 않은 토론이었지만 타인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남의 생각은 나와 다르지만 괜찮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닐 뿐인 것이지요. 타인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었다.

수업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질문이 많을 때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번은 지난 시간에 보고서로 발표했기에 생략하고 5번 질문으로 간단히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5번 '동학농민운동이란 무엇인가?'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를 한 후 질문을 바꿔서 던졌습니다.

"농민들은 왜 동학농민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세한 것은 이후의 차시에 다루기 때문에 동학사상인 '인내천', '후천개벽'으로 그 당시 왜 동학농민운동에 쉽게 참가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업이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재구성하여 진행했는데, 실생활과 관련 되는 수업이 되어서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수업 준비에 비해서 만족스런 사회수업이 되었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떠들면서 공부할 수 있으므로 수업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